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병윤 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송파 제5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유정인입니다.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청원은

송파구 주민 10,697명의 공동 서명을 바탕으로 제출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사업 노선계획에서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남부지역이 배제된 현실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일대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과 신규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도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철도교통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
서울시민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특히, 위례과천선의 종점으로 예정된

‘법조타운역’에서 북위례 중심지역까지 약 2.5km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 시 최소 20~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일상적인 이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청원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가칭)두데미역, 송례역(송파위례역), 북위례역 등 3개 역사 신설
둘째,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위례과천선의 연장 연결

○ 이 제안은 단순한 지역 교통 편의성 차원을 넘어서

수도권 철도망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광역교통 시스템 완성,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실현,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모델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 위례과천선은 수도권의 핵심 광역철도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그 노선이 실질적 교통 수요와
주민 이동권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위례와 송파 남부지역의 철도 공백을 해소하는
본 청원은 수도권 교통계획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이에 저는 본 청원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채택되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전달·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